

<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몸>도 가만히 놔두면 기능이 약해지고 굳듯이, <뇌>도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굳는다.
2.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3. 사람은 ‘뇌’로 살아간다.
4. 사람은 ‘몸’으로 살아간다.
5. 환경이 뭐 그리 중요하냐.
6. <몸> 가지고 숨 쉬고, 먹고, 입고, 생각하고, 수만 가지를 행하며 살아간다.
7. <몸>은 늘 가지고 다니며 산다. <환경>은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
8. <환경>은 사람이 사는 데 ‘도구’에 불과하다.
9. <몸>은 없으면, 1초도 살지 못한다. 고로 사람은 ‘몸’으로 산다.
10. <환경>을 천국처럼 만들어 놔도 <몸>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여 천국처럼 못 살면, 천국 같은 환경도 무가치하다.
11. <환경>은 보잘 것 없어도 <몸>을 가지고 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큰일을 하면서 살면, 그 삶은 크고 위대하다. 금 같은 삶이다.
12. <몸>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느냐가 문제다. 욕을 위해 잠깐 사는 일을 하느냐, 영을 위해 영원히 사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잠깐의 가치’, 혹은 ‘영원한 가치’로 좌우된다.
13. 몸으로 사니, 몸 관리다.
14. 모르면, 자기가 고통을 만들어 자기를 고통 받게 한다.
15. 지옥도 자기가 자기를 가게 한 것이다.
16. 자기 몸인데, 왜 100% 못 하느냐.
17. 남과 같이 하면 마음이 안 맞아서 100% 못 한다. 그러나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100% 못 하느냐.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고, 안 배웠기 때문이며, 배웠어도 귀히 여기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18.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안 해서 자기를 고통 받게 하는 것이다.
19.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안 해서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고,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해서 자기를 천국으로 가게 한다.
20. 메시아는 천국에 가는 길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인생들을 천국길로 인도하여 천국에 가게 한다.
21. 인생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삶을 사는데, 천국 길을 가르쳐 주어 천국에 가게 하니 그 얼마나 큰일이냐. 고로 '구세주다' 하는 것이다.
22. 가르쳐 주되, '실천'은 자기 몸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 몸으로 자기가 사니, 매일 자기 몸으로 자기가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23. 인간은 자기가 잘하는 데까지만 잘된다. 잘못 하면 바로 잘못 된다.
24. 생명을 낳아 놔도 관리자가 없으면 바로 죽는다.
25. 생명을 낳은 자가 관리하고, 그것으로 안 되면 옆의 사람이 자기가 낳은 듯 관리해 줘라.